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내일**  
2018. 3  
Vol. 515



# CONTENTS

2018. 3 Vol. 515



06



10

## SECTION 1 미래로 가는 길

- 04 알기 쉬운 정책
- 06 내일을 위한 청년정책
- 10 가재 미래로
- 14 청년 서포터

## SECTION 2 목표를 얻는 길

- 18 능력개발 길잡이
- 22 미래 유망 직종
- 26 명인을 만나다



22

## SECTION 3 변화가 시작되는 길

- 30 Work & Life Balance
- 34 청춘불패
- 38 상생을 꿈꾸다



34



42



46

## SECTION 4 꿈을 함께 하는 길

- 42 함께 하는 세상
- 46 나누고 더하면 행복
- 50 드림 프로젝트

## SECTION 5 희망을 노래하는 길

- 54 노사문화대상 수상 기업
- 58 쉽게 풀어 보는 산업안전
- 62 노동법 길잡이
- 64 모엘 뉴스
- 68 내일 카툰



54

## SECTION 6 여유를 찾는 길

- 70 이달의 청백리
- 72 건강 100세
- 74 한국의 맛
- 76 상식사전
- 78 길 위의 사색
- 82 모엘 마당



78

고용노동부 소식지 3월호 <내일>

통권 제515호  
 등록번호 강남 라00389  
 발행일 2018년 4월 18일  
 발행인 김영주  
 발행처 고용노동부  
 편집위원장 황보국(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77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기획·편집·디자인 하나로에드컴  
 인쇄·발송 애드그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  
68 시간 → 52 시간

### 시행 시기

노동자 300인 이상 2018.7.1.부터

노동자 50~300인 미만 2020.1.1.부터

노동자 5~50인 미만 2021.7.1.부터

### 특례 업종 축소

26 종 → 5 종

### 공휴일 유급휴일제

##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유급휴일로 도입

### 시행 시기

노동자 300인 이상 2020.1.1.부터

노동자 30~300인 미만 2021.1.1.부터

노동자 5~30인 미만 2022.1.1.부터



## 휴일근로 수당

8시간  
이내 근무

8시간  
초과 근무

50%  
할증 지급

100%  
할증 지급

## 개정안 주요 내용



1주 최대 주52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감축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서면합의를  
통한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021.7.1~2022.12.31.)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  
(2018.3.20.부터)



특례업종 26개 → 5개 대폭 축소(2018.7.1.부터)  
특례 도입 기업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2018.9.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청년과 기업이 모두  
원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다

## 청년 고용촉진방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청년 고용촉진방안은 실제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좋은 인재를 매칭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글 노혜진



### 해결책 1

#### 기업·청년 인센티브 패키지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고용 시에 적용되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1인, 30~99인 기업은 2인 고용 시부터 지원을 하고 성장유망업종에 한하던 자격을 5인 이상 전체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지원금 역시 1인 667만 원에서 900만 원(3년 2,7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꿉니다. 기존 제도에 추가하여 신규 취업자 대상 3년형(3년 3,000만 원)을 신설하고 기존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Ⅱ(5년형-최대 3,000만 원)도 새롭게 개설됩니다.

청년들이 충분한 직장탐색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가입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에는 1회 재가입을 허용합니다. 지원기간 중 회사의 폐업이나 도산, 권고 사직 등으로 공제가 해지된 경우에도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 해결책 2

#### 청년의 취업준비 지원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에게 3개월 30만 원 지급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대학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의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청년센터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프라인은 스터디룸, 휴식 공간 등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는 온라인과 SNS를 이용한 채팅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합니다. 채용공고 시에 선발기준 정보를 공개하고 선발 결과를 응시자에게 피드백하는 문화를 정착합니다. 공공부문 채용 비리는 엄단하고 채용비리 제재 규정도 신설합니다. 또한 실업자 훈련 및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훈련을 확대 운영합니다.

### 해결책 3

####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취업성공패키지의 내실을 좀 더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 상담사를 지정하는 전문상담제 운영을 검토합니다.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와 위탁비 지급 체계도 개편합니다.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워크넷에 사용자 정보와 고용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머신러닝(AI)기반 자동 추진 방식으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일·생활 균형의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등의 법·제도를 개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직장 내 성희롱 역시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청년과 기업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책 어떤가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이번 정책이 더 좋은 내일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 7321 디자인

너와 내가 함께  
우리의 유일한 것을 만들다

어느 순간 우리 생활에 디자인 문구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이어리 하나를 사도 저렴한 실용적인 것보다는 비싸도 예쁜 것을 선택하게 됐죠.  
7321 디자인은 고전 앨리스와 어린 왕자를 접목하여 디자인 문구를 만들어 선보임으로써  
여성들의 감성을 건드린 디자인으로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 동화를 콘셉트로 성장한 회사

7321 디자인은 2004년 국내 대표 기획사 출신의 대표가 만들었습니다. 홍보 분야에 잔뼈가 굵은 사람답게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재빨리 파악했는데, 바로 현재도 많이 쓰이는 '감성 마케팅'을 다이어리에 접목시키자는 것이었죠. 7321 디자인의 전종령 이사는 '디자이너 중심으로 성장한 회사'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7321의 뜻은 원래 회사를 개업할 당시 7년 후 3월 21일 창립기념일에는 좋은 회사가 되자는 의미였는데, 업력 14년이 지나 7321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7과 3은 각각 서양과 우리나라에서 좋은 의미이고 2는 너와 나 우리 함께, 1은 유일한 우리의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것으로 정했어요."

이렇게 새롭게 의미를 정리한 이유는 회사가 커 나갈 수 있는 바탕에는 고객이 있었기에 고객과 함께 하는 회사가 되자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 직원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

7321 디자인은 동화를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왔는데, 이처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직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을 위한 많은 복지를 만들고 실행하고 있는데, 회사 근무 3년 차가 된 직원에게는 원하는 나라를 정해 10일 정도 해외여행을 보내 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 청년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준 일학습병행제

7321 디자인은 2009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학습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제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학습병행제의 장점이라고 하면 현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패브릭 읍셋인쇄와 사철 제책방법, 포장용기 및 조립체에 대한 3가지 특허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학교에서는 생산관리와 인쇄에 대해서 잘 알기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현장과 연결지어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죠.”



### 우리의 색깔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저희는 현재 미술협회 등 여러 단체와 연계하여 작가들과 함께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품을 만들고 전시회 공간을 제공하여 좋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세상에 내보이는 거죠.”

오프라인 습이 있고 무엇보다 디자이너들의 실력이 출중하기에 더 많은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는 전종령 이사. 7321 디자인은 앞으로도 계속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핵심가치는 직원의 능력에 있다고 말하는 7321 디자인은 새롭게 정리한 의미처럼 모두 함께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해 나갈 7321 디자인의 이야기가 기대되는 까닭입니다.

### 기업 특성에 맞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

7321 디자인은 일학습병행제를 시작하기 전에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전종령 이사는 기업 특성에 맞는 일학습병행제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도 밝혔습니다.

“교수님들께 저희 회사의 특성을 세세히 알려 드렸어요. 알아두면 좋을 금형 같은 팁들은 같이 의논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짰죠.”

그렇게 1년 동안 일학습병행제를 진행한 결과 7321 디자인은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관리직무를 익히기 어려웠던 1~2년 차 신입직원들이 학습 후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청년들과 함께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하다

# 상신브레이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중 브레이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운전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브레이크는 그만큼 좋은 품질이 중요하죠.  
오늘 소개할 상신브레이크는 자동차 부품 중 브레이크만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이지수, 상신 브레이크



## 43년 브레이크 외길 기업 상신브레이크

상신브레이크의 시작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신화학공업사로 출발해 1975년 상신브레이크공업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면서 브레이크 전문 생산 업체로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독일·일본과 기술 제휴, 코스닥 등록 등 사세를 꾸준히 확장하여 2015년에는 수출 1억불 탑도 수상하게 됩니다. 현재 상신브레이크는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동참하여 중국, 인도, 멕시코 등 현지 공장을 기반으로 미국 판매 법인과 중동 지사까지 설립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5년간 151명 채용

상신브레이크의 최근 5년간 채용자 수는 151명에 달합니다. 기확실 이상헌 부장의 말에 따르면 중견기업 채용 규모가 평균 10명 이하인데 상신브레이크는 2018년에만 벌써 22명을 채용했습니다. “우리 회사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4,200만 원 이상으로 중견기업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 외 인센티브와 휴가, 개인 포상 및 각종 복리후생은 물론 근속상여도 매년 10%씩 증가(10년간, 11년 이후 5%)합니다.” 이처럼 높은 연봉과 상여로 인해 상신브레이크의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 기회

총무부 박태준 부장의 말에 의하면 ‘대학생과 함께 하기 위한 상신의 노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2년부터 매년 참여 실시 중인 대학생 희망이음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의 일하기 좋은 기업을 탐방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구에서는 상신브레이크 외에도 이레오토, 경창산업 등 27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채용박람회인 Leading Korea, Job Festival에도 2012년부터 매년 참여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대구우량기업 대학 리크루트 투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매년 방학 때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2월 16일까지 8주간 진행했습니다.”

기획, 품질, 연구소에서 인턴 13명을 채용하여 진행한 이번 대학생 인턴십은 우수 학생에게 현장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학생을 조기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대구지역 5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상신브레이크 인턴십의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열정페이 없이 청년이 일을 한 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4대보험, 주휴수당, 최저시급 등을 철저히 지켜서 지급합니다.”

### 직원을 배려하는 다양한 복리후생도 강점

상신브레이크의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다양합니다. 상신브레이크는 워라밸을 실천하여 직원들이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요, 8시 20분 출근 5시 퇴근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야근을 피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데이가 있으면 휴가를 권장하여 쉬게 하는 문화도 있고 휴가 역시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박태준 부장은 효과적인 워라밸을 위해 퇴근 시간 30분 전인 4시 30분부터는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고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금하는 등,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회사는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일본어, 영어, 중국어는 사내 외국어 교육도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고 있고요, 2011년부터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석박사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애사심도 향상할 수 있고 직원들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 반응이 좋죠.”



이러한 등록금 지원은 현재까지 총 35명이 수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우수사원에게는 해외 연수의 기회도 부여하고, 장기근속을 할 경우 10년 차와 20년 차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국내, 해외 여행을 보내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타지에서 오는 신입사원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여성 전용 기숙사 1채를 포함해 기숙사 8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더욱 발전하는 내일을 위해

상신브레이크는 2011년 노사화합을 이루며 상호 믿음이라는 회사의 이름답게 서로 믿고 배려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확실 이상한 부장은 더 나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임을 말하기도 했어요.

“업무환경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고려하고 최근에는 반차 제도가 생기기도 했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회사가 하나가 되어 같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무직과 생산직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1년부터 매년 14차에 걸쳐서 신뢰와 화합을 통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마음 교육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1박 2일 동안 호텔에 머물면서 커피도 제조하고 화합주도 만들고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한다고 해요.

업력이 43년이나 되었지만 상신브레이크는 아직까지도 힘차게 달릴 에너지가 남아 있는 청년친화강소기업입니다. 회사의 조직원 모두가 웃으면서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상신브레이크의 힘찬 내일이 기대됩니다.



더 많은 이들의 더 다양한 훈련을 지원합니다

## 내일배움카드제

### 잠깐! 내일배움카드제란 무엇인가요??

내일배움카드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라고도 하며, 직무능력 향상이나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능력교육이 필요한 재직자, 구직자, 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계획의 구체성, 훈련의 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 받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지요. 대상자가 되면 농협카드나 신한카드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훈련기관에서 수강신청을 하고, 본인 부담금액을 결제한 후에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 많은 이들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 능력 향상은 물론 취업과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늘리려 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내일배움카드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더 현명해진 변화를 소개합니다.

글 강숙희



**첫 번째 변화 발급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전까지는 최근 1개월간 일용근로내 역일수가 1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던 내일배움카드를 전 업종으로 확대 해, 건설업이 아닌 업종의 일용근로자도 내 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 더 가까워진 내일배움카드 발급**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센 터를 방문하기 전에 HRD-Net(www.hrd.go.kr)에서 교육 동영상 시청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 동영상을 PC 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바일에서도 시 청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강 확인증을 직접 인쇄해 가지 않아도 된답니다.

**세 번째 변화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 강화**

내일배움카드제에도 일정 정도의 자비부담금 이 있는데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취업률이 낮은 직종의 훈련은 자비부담을 더 많이 하고, 취업률이 높은 직종의 훈련은 자비부담을 더 적게 하도록 해서 보다 신중하게 훈련과정을 선택하게 하려 하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훈련 받고 취업으로 연결되는 훈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 훈련과정의 다양화**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기능인력을 양 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을 지정 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 련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산 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제어, 홈IoT, 산업IoT, 3D프린터 운용 등 12개 직종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 종으로 추가 지정해 훈련과정을 더욱 다양화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가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이제 미래 노동시장은 변화를 확실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능력개발도 평생의 과제가 됐지요. 그러 니 취업시장에 뛰어들어 이라면 누구라도 내일배움카 드제를 알아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일배움카드제 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테니까요.

새처럼      날아서      공중을      바라보는      헬리캠

# JY비주얼

4계절 내내 알록달록하게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산하의 풍경,  
바다 한가운데 있는 다리에 난 균열, 초고층 빌딩의 꼭대기 풍경까지 이 모든 것은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촬영하는 헬리캠 촬영기사가 찍은 것입니다.  
새처럼 날아서 공중을 바라보는 헬리캠 촬영기사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글 노혜진 사진 이준호



###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탐사하는 헬리캠(Helicopter Camera)

헬리캠은 사람이 직접 촬영하기 어려운 장소나 풍경을 담기 위해 드론이라 불리는 무인 항공기에 카메라를 장착시켜 원격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촬영 장비를 말합니다. 헬리캠이 나오기 전까지는 촬영기사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헬기에 탑승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였는데요, 세세한 풍경을 담거나 비행 구역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안전 사고 위험도 있었다고 해요.

### 항공 촬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헬리캠 촬영

JY비주얼의 이종열 대표는 일반 스튜디오에서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며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자주 탔다는 그는, 어느 순간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고 해요.

“2009년에 처음으로 RC 헬리콥터(무선 헬리콥터)에 카메라를 올려 사진 촬영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죠.”

이종열 대표는 첫 시도였던 만큼 촬영용 헬리콥터 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간신히 제작해 주는 곳을 찾았더니 비용적인 문제는 물론 항공 촬영 허가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드론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법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촬영을 허가 받아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촬영기사의      세계

# 이종열 대표



###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함 없는 안전

이중열 대표에게 헬리캠 촬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물으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드론이 장난감처럼 생겼기 때문에 방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드론은 완구류가 아니에요. 고속으로 회전하는 이 프로펠러는 선풍기 날개보다 날카롭고 강합니다. 칼날보다 사람을 더 해칠 수 있어요. 헬리캠 촬영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추고 진행해야 합니다."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헬리캠 촬영

이중열 대표는 헬리캠 촬영 시장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탐사나 측량, 식물 촬영이라고 해서 식물의 성장과정을 관찰하는 특수 촬영까지 모든 것을 헬리캠으로 진행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분야가 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헬리캠 촬영이 다가갈 일이 많을 거예요."

특히 요즘은 특수 촬영 분야의 의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헬리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하네요.

### 드론조종과 촬영 모두를 잘하는 것이 중요

이중열 대표는 헬리캠 촬영이라는 특수한 장비 때문에 이 역시 사진 촬영의 한 갈래임을 잇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촬영의 기본은 역시 '사진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헬리캠 촬영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헬리캠 촬영은 사람이 손으로 들고 찍던 카메라를 드론에 올린 것뿐입니다. 헬리캠 촬영을 잘하기 위한 기본은 역시 사진 촬영입니다."

물론 도구를 잘 다루야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론 조종을 잘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드론 무게가 12kg이 넘는 장비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론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에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도전해 볼 생각이려면 자격증 획득도 중요하다고 해요.

### 드론조종자 교육에도 열심

이중열 대표는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의 부설기관인 인천무인항공교육센터에서 드론교육팀의 지도조종자로도 활동 중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서 교육을 시작하게 됐어요. 작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바쁘기는 하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종 과정만 지도하고 있지만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기체 정비, 항공촬영 심화과정, 항공방재쪽도 교육을 해 보고 싶다고 해요. 이중열 대표는 현재 촬영과 드론 조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 보면 좋은 분야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특수 분야라고만 생각했던 항공 촬영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 지금 헬리캠 촬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중열 대표의 말처럼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연이 찾아 준 나의 길

## 조성용

한 가지 일로 큰 성과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자신의 길을 정해 놓고 그 길만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국제기능올림픽 철골구조물 금메달 수상자 조성용 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글 노혜진 사진 이지수

### 취업을 하기 위해 공업고등학교를 갔던 소년

조성용 씨는 빨리 취업을 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인천기계공고)를 입학하게 되었죠. 조성용 씨는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측에서 기능영재반 권유를 받게 됩니다.

“기능영재반은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반이었는데요, 저는 기능영재반에 있으면 취업이 더 수월할 거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조성용 씨의 전공은 판금이었다고 합니다. 기능영재반에 들어간 조성용 씨는 그 일에 열심히 매달립니다. 그 결과 3학년 때 전국기능경기대회 판금 직종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죠.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된 철골구조물**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을 획득한 후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조성용 씨는 43회 브라질 기능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쉬운 탈락이었습니다. 열심히 했던 만큼 실망도 컸던 조성용 씨에게 철골구조물이라는 종목에 도전해 볼 생각이 없냐는 회사측의 권유가 떨어진 것은 그때였습니다.

“철골구조물은 국내 대회가 없어요. 철골구조물 분야를 다루는 회사도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현대중공업밖에 없죠. 그래서 판금 국가대표에서 탈락한 제가 철골구조물 국가대표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조성용 씨는 2년 동안의 독한 연습 끝에 드디어 국가대표 자격증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연습 또 연습의 연속이었던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난 후 조성용 씨에게는 다행이라는 마음과 함께 압박감이 찾아왔다고 해요. “회사에 들어와서 연습을 시작하다 보니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성과를 낸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철골구조물이 우리나라 금메달 유망 종목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있었죠.”

대회 6개월 전부터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연습에만 매달립니다.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9시에 끝나는 기본 연습에 추가하여 밤 10시~11시까지 더 연습을 하고 대회 전 3달 동안은 새벽 1시에 연습을 끝내는 일도 많았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매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했죠.”

조성용 씨의 열정 때문인지 지도위원도 열심히 도왔다고 하는데요, 국제대회에서 통역을 담당한 분 역시 더 정확한 통역을 위해 철골구조물 분야를 공부까지 했을 정도로 모두가 합심해서 도왔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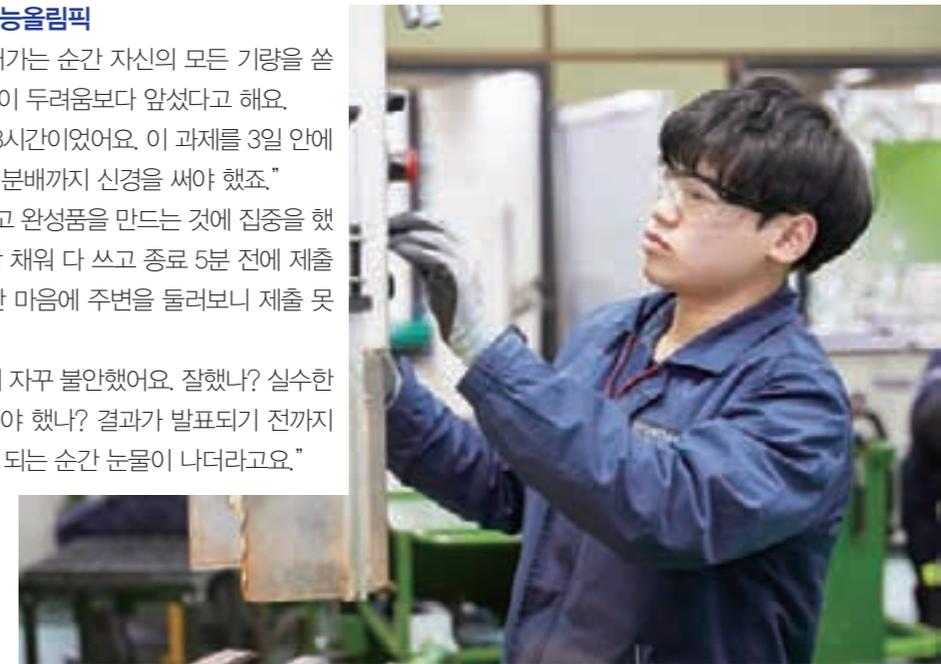
**시간과 체력이 관건이었던 국제기능올림픽**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장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모든 기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설렘이 두려움보다 앞섰다고 해요.

“도면 검토 4시간, 제품 만드는 게 18시간이었어요. 이 과정을 3일 안에 끝내야 하는데요, 시간 분배와 체력 분배까지 신경을 써야 했죠.”

조성용 씨는 일단 제출에 목표를 두고 완성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거의 꽉 채워 다 쓰고 종료 5분 전에 제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니 제출 못한 선수도 5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불안했어요. 잘했나? 실수한 거 아닌가? 이걸 좀 더 꼼꼼히 했어야 했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불안해하다가 금메달이라고 발표가 되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더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조성용 씨는 현재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사내 대학 조선해양과에 진학도 했다고 해요.

“저는 아직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헛되이 지나치지 않으려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우려고 합니다.”

조성용 씨는 자신은 운이 좋았기에 자신의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간절함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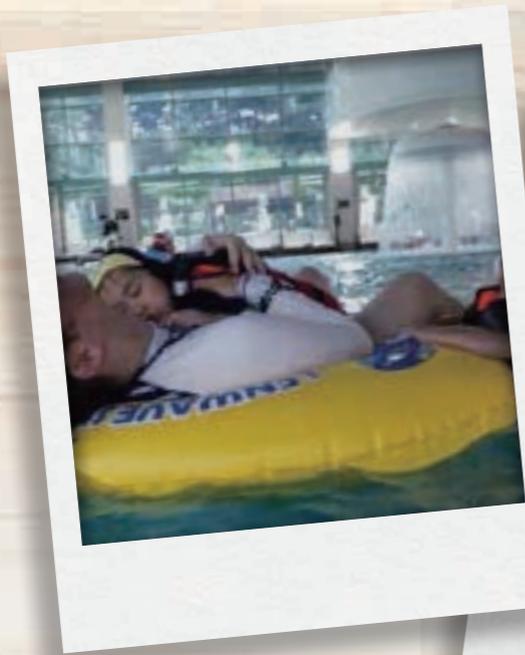
우연을 기회로 만들어 자신의 길을 찾게 된 조성용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회사 생활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조성용 씨의 도전 정신과 끈기가 어린 나이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조성용 씨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휴식이 있는 삶을 생각하다

# Work & Life Balance

최근 워라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라벨은 Work &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 휴식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워라벨이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휴식 있는 삶 사진 콘테스트에 참여한 작품들도 함께 감상해 보세요.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 일·생활 균형 캠페인이란?

노동자는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 일·생활 균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MISSION 1 오래 일하지 않기

정시 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실천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 MISSION 2 똑똑하게 일하기

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 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 MISSION 3 제대로 쉬기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 사유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건강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 일정 사전 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실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 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생활 지원

## 다시 한번 자동차와 함께 달리다

# 김봉곤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해 왔던 사람은 퇴직을 하고 난 후 경력을 바탕으로 금세 재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욱 차가운 경우가 많죠. 오늘의 주인공 김봉곤 씨도 그랬습니다. 재취업의 높은 벽에 좌절을 하던 그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달릴 수 있게 되었죠. 김봉곤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료 제공 노사발전재단



### 자동차와 함께 달려온 인생

김봉곤 씨는 오랫동안 렌터카 업체의 지점을 맡아 차량 정비, 점검, 외관관리 등 자동차에 관한 일을 성실히 해 왔습니다. 그에게 실직의 아픔이 닥쳐온 것은 2017년 2월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오랜 경력이 있었기에 금세 재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김봉곤 씨. 하지만 재취업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재취업을 하려 했는데, 만 65세 이상은 보험 처리가 안 된다며 이력서 자체를 받아 주지 않았어요.” 고용센터에 등록된 구인란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어 봤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해요. 퇴직할 당시 쉽게 생각했던 재취업의 꿈은 계속되는 박대 속에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 취업의 길을 찾아준 부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던 중 노사발전재단 부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이하 부산희망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희망센터 설치한 전문위원의 전화였는데, 제가 경력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구직처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장년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협약 기업 중에 한 곳을 소개해 주셨죠.”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부산희망센터를 방문한 김봉곤 씨는 ‘에코모터스’에 대한 정보와 현장 업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력서 침삭까지 코칭해 준 부산희망센터**

에코모터스는 2016년 9월에 설립한 신생 기업으로 중고차 매매와 매입, 렌트 및 보험 등 중고차 거래를 주로 하는 사업장이었죠. 김봉곤 씨가 잘하는 업무와 에코모터스가 필요로 하는 업무능력이 일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희망센터에서 일대일 상담과 클리닉을 통해 제가 수십 년의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까지 현역으로 일한 점을 이력서에 강조했어요.”

**면접까지 동행하여 힘이 되어 준 전문위원과 컨설턴트**

에코모터스의 면접일에 부산희망센터의 설지현 전문위원과 정주희 컨설턴트가 면접 자리에 동행했습니다. 기업체와 취업자간의 가교 역할을 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김봉곤 씨는 상반기 내내 실직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때였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면접 중에 함께 해 준 전문위원님과 컨설턴트님이 에코모터스 측에게 제 경력 중심의 업무 능력을 강조해 주셨어요. 저도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음을 어필했죠.” 면접 후 에코모터스는 김봉곤 씨의 출근을 결정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했던 인턴 급여도 정규직 전환 후에 인상을 고려하기로 하죠.

**노련미가 장점인 중장년층 취업자**

에코모터스의 정상근 사장은 중장년층의 장점을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노련미라고 이야기 했는데, 꾸준하게 오래 일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우연히 장년고용지원금 제도를 알게 되었고 적합한 분이 오셔서 바로 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현재 김봉곤 씨는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중고차매매단지의 사직오토랜드 안에 위치한 에코모터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들, 더욱 도움이 되고 싶어**

김봉곤 씨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나이가 들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보기를 권유하기도 했는데, 기업체에도 중장년분들은 살아온 내력에서 일을 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많은 채용을 부탁 드린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추었던 7개월의 시간. 김봉곤 씨에게는 긴 시간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한 김봉곤 씨의 앞날에 밝은 내일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에도 의욕적으로  
일하는 당신을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5060세대를 일컫는 신중년. 지금 시대의 신중년들은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지만,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으며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중년들에게 적합직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려 합니다. 그동안 관심 대상에서 멀어져 있던 신중년들의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위하여!

글 강숙희



## 생소한 단어, 신중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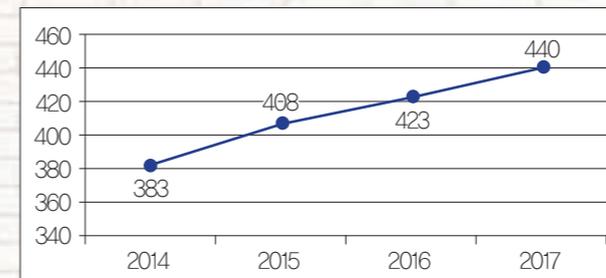
신중년이란 전체 인구의 1/4, 생산 가능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존에는 이들을 은퇴자 혹은 노인으로 국한해 사회와 삶에서의 활동 축소를 연상시키는 단어로 규정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일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가 충분하며, 의욕과 필요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신중년이라는 단어로 이들을 재정의하고, 은퇴 이후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 퇴직 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이어 나가세요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을 올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하 바 있는데요. 이는 주된 일자리(1모작)에서 퇴직 후-재취업 일자리(2모작)로 이동했다가 다시 사회공헌 일자리(3모작)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신중년 인구 수에 비해 그동안 정책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 퇴직 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의 퇴직 이후의 고용 촉진을 위해 도입된 방안입니다.

<신중년 증가 추세(55~64세 인구)>

단위 : 만 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소개합니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첫 해인 만큼 올해는 2,000명 규모로 실시하며, 앞으로는 더 확대할 예정이지요. 신중년에겐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해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는데요, 구직자 및 구인기업 수요조사와 노사·관계부처·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영·진단전문가, 노년플래너, 산업카운슬러, 전기·설비 기술자 등 55개의 적합직무를 마련해 놓았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직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적합직무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게 된답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내용〉

사업규모 : 2,000명 규모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채용요건 : 정규직 채용

지원조건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지원수준 :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 기준〉

-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경영·진단전문가 등 신중년의 경력 및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세대에 비해 업무 수행이 더 적합한 직무
- 정보통신 발달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도전할 수 있는 산업카운슬러, 노년플래너 등의 직무
- 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직무 중 직업훈련 등을 통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용이한 조경기술자, 전기 설비 기술자 등의 직무

### 사업주라면 이렇게 지원 받으세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http://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서류 서식 및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절차를 거친 후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 마지막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답니다. 올해 첫 시행이니만큼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 사업주라면 꼭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전 시민들에게  
건강할 권리를  
찾아 주다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의사가 없어서, 의료비가 비싸서 망설이는 경우가 있죠.  
대전에 위치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사회적기업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이승기



**의약분업을 계기로 탄생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들레의료사협)의 출발은 나눔과 협동의 경제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 단체 '지역품앗이 한발레츠(이하 한발레츠)'와 참다운 의료생활을 지향하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였습니다. 2001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믿을 만한 의료기관을 지역에 설립하기로 결심하고 한발레츠 회원 8명이 주축이 되어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렇게 2002년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민들레의료사협 경영지원실 한영수 실장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닌 환자가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 주는 것이 목표'라고 민들레의료사협의 의의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과잉진료를 없애고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을 지양하고 주민 스스로가 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민들레의료사협과 조합원은 같은 지향점을 가진 동지**

민들레의료사협의 설립 멤버이자 핵심 멤버인 나준식 원장은 '의사로서 환자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좋아서 조합 설립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의사로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주인인 의료기관이라는 생각으로 17년간 내부 갈등 한 번 없이 조직이 운영되어 왔다고 합니다.

“민들레의료사협은 필요할 때 찾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서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

2014년 민들레의료사협은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동안 10년 넘게 세 들었던 건물에서 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던 것인데, 오랫동안 한 곳에서 병원을 운영해 왔기에 함부로 옮기지도 못할 처지였다고 해요.

“조합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저희가 세 들어 있던 병원 건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7년 민들레의료사협은 정기총회를 통해 조직과 사업을 개편하였는데, 의원, 치과, 한의원, 건강검진센터 등 의료기관을 일차의료센터로 편제하고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여 질병 예방, 보건사업, 노인건강돌봄사업, 건강의 집, 건강리더 양성사업, 장기요양사업 등의 사업과 담당인력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더욱 세심히 돌보기 위한 민들레의료사협의 조치였습니다.

“작년에 최신 초음파 기기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기도 새롭게 교체하고 있고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와 노인돌봄 사업을 통한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지원이나 건강, 의료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민들레의료사협은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이념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민들레의료사협의 힘찬 행보를 응원합니다.

전국에 민들레의료사협과 같은 의료사협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료사협을 알아보고 함께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장애인 복지를 위한 취업을 설계하다

# (주)행복누리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생각을 허물어 모두 함께 어울려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LG화학의 자회사인 (주)행복누리의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이지수



###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설립된 (주)행복누리

(주)행복누리의 설립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5월 모회사인 LG화학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설립 MOU를 체결하면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회사 설립 의논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죠. 2013년 3월 15일 (주)행복누리의 법인이 설립됩니다.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에 현재도 이윤보다는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일하는 문화

(주)행복누리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직장 풍토를 만들고 있는데요, (주)행복누리 이종일 부장의 말에 따르면 (주)행복누리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함께 생활하며 부딪히게 하는 것이 (주)행복누리의 특징이라고 해요.

"청소부터 환경미화, 카페, 매점, 시설 관리, 헬스키퍼, 주차 관리, 세차장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 가르쳐 주는 일을 빠르게 습득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 역시 제 편견이었음을 깨달았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5년 동안 이렇게 어울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복누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사회 적응을 다시 해야 하죠. 그 과정에서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LG화학의 지속적인 지원은 장애인이 일하기 불편함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동문, 턱 없는 출입구, 점자 블록 등을 설치하고 장애인 직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직무별 전문 관리자를 고용해 장애인 직원들을 도왔다고 해요. “현장에서 직접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수용하여 조금씩 환경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비장애인 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진행**

㈜행복누리 직원들이 일하는 LG화학 오창공장 본관 3층의 카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장애인 직원들은 장애인 직원들이 일하는 카페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종일 부장은 자연스럽게 회사의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장애인 직원들은 LG화학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통근버스, 구내식당, 샤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 일하고 같은 시설을 쓰면서 동료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정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직장**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을 하고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동료와 함께 지내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누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행복누리는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돕고 있는데, 급여 역시 그 일부분입니다. 이종일 부장의 말에 따르면 ㈜행복누리의 장애인들은 현재 최저임금보다 10% 이상 급여를 더 받고 있다고 해요. “장애인 직원들이라고 해서 급여를 적게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년 12월에 회의를 통해 급여를 새롭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행복누리는 계약직이 한 명도 없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복리후생 역시 평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는 생일 선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1년에 한 번 야외회와 장애인의 날에는 우수 사원에게 경품도 선물한다고 해요.

**더 많은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재 ㈜행복누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185명 (2018년 2월 기준)입니다. 이 중 장애인 직원은 130명이죠. 젊은층부터 50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의 연령도 다양합니다. ㈜행복누리는 앞으로도 장애인 직원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늘리기 위한 직종 확대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장애인들 역시 채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해요.

현재 ㈜행복누리의 장애인 이직률은 1%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즐겁게 일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행복누리처럼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일할 수 있는 곳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하기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 영서의료재단 이지혜 이사장

천안과 아산 등 충남권에서 대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영서의료재단은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곳으로도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에 영서의료재단 이지혜 이사장은 2017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개인 부문 최고상인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어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직원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영서의료재단 이지혜 이사장을 만나 보았습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 지역친화적인 거점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1990년 영서의료재단의 본원인 천안충무병원이 3개과 79병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요, 2009년부터 2년여에 걸쳐 신관 신축과 본관 재건축을 마치고 21개과 430병상 규모의 천안지역 최대 뇌심장병원을 보유한 종합병원이 되었죠. 지역 최초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재활의학과 등 뇌와 심장, 재활과 관련된 통합검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서의료재단은 천안충무병원을 시작으로 아산충무병원,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원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병원

영서의료재단의 이지혜 이사장은 예전에는 치과의사로 천안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영서의료재단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남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이 커지면서 의논 끝에 남편인 권영욱 전 이사장은 회장으로 올라서고 제가 재단을 물려 받아 2013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2015년 아산충무병원이 오픈을 하면서 더 많은 직원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2014년 3월 말에 634명이었던 직원 수는 2018년 3월 현재 1,223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배려

영서의료재단은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을 채용하여 더욱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어요. “1,223명 직원 중 92%가 정규직인데요, 계약직의 경우에는 정년이 넘어서 재고용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계약직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죠.” 이지혜 이사장은 한번 우리 직원이 되었다면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일하고 싶을 때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토라고 하는데, 또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일자리 창출, 고졸 및 지방대생 채용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배려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여성전용기숙사 등 다양한 복리후생

여성이 많은 의료재단의 특성상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를 위해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전용기숙사 운영, 대체인력채용, 임신 및 출산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0년 이상된 직원에게는 자녀 학자금도 지급하기도 하고요, 경조사 지원금, 진료비 할인, 리조트 이용, 특별휴가 등을 제공합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더욱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동호회를 권장하고 매달 동호회 지원금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극기훈련, 워크숍 등 다양한 어울림의 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말에는 직원 가족까지 초대해 함께하는 송년회를 개최하여 모범사원에게는 포상도 한다고 해요.

### 직원과 지역의 힘으로 함께 커 나가는 의료기관

영서의료재단은 현재 아산시에 3,000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권역재활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활병원이 건립되고 나면 더 많은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의료재단이 커질수록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이지혜 이사장은 의료재단의 발전에는 직원과 지역민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지역에도 기여를 하고 싶어서 야간 중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의 걷기대회에 점심 및 태극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회후원과 충남핸드볼협회 후원, 다문화가정 무료진료도 진행하고 있어요.”

### 더 즐겁고 기운찬 내일을 위해

현재 영서의료재단의 아산충무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했는데, 이는 환자 및 직원의 안전보장, 진료체계 및 의료 질 향상, 감염관리, 약물관리, 의료기관 조직 및 인력관리, 환자만족도 등 총 537개 항목을 평가하여 환자 안전 및 직원 안전에서 일정한 수준에 이른 의료기관을 인증하는 평가입니다. 내실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며 발전해 나가고 있는 영서의료재단. 이지혜 이사장의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모두가 행복한 의료기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갈등 뒤에 단단해진  
노사의 화합

# 한국조폐공사

노사의 관계가 원만한 기업들을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노사가 화합을 하며 지내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될 정도로 극심한 노사 분규를 겪었던 회사가 화합과 소통으로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까지 거머쥐게 된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조폐공사의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한국조폐공사

### 지폐와 주화를 만드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국내 유일의 제조 공기업으로 1961년 혼란스러운 한국전쟁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화폐·은행권·보조화폐·국채·복권·수입인지·기타 증권과 유가증권 용지 및 정부가 지정한 목적에 사용할 특수 용지 등을 제조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으며 1988년 화폐박물관의 개관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화폐문화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IMF 당시 극심했던 노사 갈등

한국조폐공사는 1998년 IMF 당시 직원들을 감축하고 조폐장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장기파업, 직장폐쇄, 노조위원장 구속 등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었습니다. 강석민 노사협력실장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도 당시의 상처가 남아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에 연일 오르내릴 정도로 큰 갈등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끝나게 됩니다.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데 뜻을 함께 하게 된 거죠.

### 상처를 드러내어 치유하게 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왕상식 노조협력팀장은 조직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상처를 제대로 치유도 하지 않은 채 달리다가 2010년, 12년이 지나서야 이제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일환으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노사관계의 큰 틀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렇게 참여하게 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조폐공사는 노사문화 우수 기업을 벤치마킹하여 노사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노사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과제를 해결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노사 간의 해묵은 상처를 직접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죠."





### 노조가입률 99%로 전 직원 한목소리

한국조폐공사는 현재 유니온 스킴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스킴이란 취업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제도인데요, 1991년 유니온 스킴을 채택한 이래 한국조폐공사는 지금까지 쪽 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황성한 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은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노사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전 직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니온 스킴은 그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한국조폐공사는 노사가 하나가 되어 평화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창립 이래 최초로 정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는 등 큰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회 감탄했던 노사 간의 배려와 화합

1988년 한국조폐공사의 노조가 탄생한 이래 1993년 노동대혁명부터 이후 7년간 수많은 노사 분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강석민 노사협력실장은 당시의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노사문화대상을 심사하러 우리 공사에 방문했던 심사위원들이 당시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 이후 18년간 무분규를 달성했다고 하니 심사위원들도 감탄을 했어요." 이러한 18년 무분규는 회사와 노조 모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화로 해결하자는 기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는데요,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한국조폐공사의 이름 아래 하나 되기

현재 한국조폐공사는 만 50세 이상 장년 직원이 40%에 달합니다. 김태학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청·장년 직원 간의 세대 갈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말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저희도 새로운 사업으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직원들도 전통적인 관계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년층 직원들은 달라져야 하고, 청년 직원들 역시 장년 직원들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태학 부위원장은 외부 전문기관의 세대 갈등 예방 프로그램 개발도 청·장년 직원 간의 스킨십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갈등을 넘어 노사가 하나가 된 한국조폐공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조폐공사는 앞으로도 원활한 소통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려움을 딛고 18년 연속 무분규의 신화를 이룩한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대화로 미래를 함께 바라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 봄철 많이 발생하는 질식사고, 이것만은 예방합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맨홀, 오폐수처리장, 축산분뇨 처리 작업 등에서 유해가스 질식이나 산소 결핍으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도움 자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최근 발생한 사고>



2017.06.22 사망 2명  
하수관거 정비공사  
(맨홀 내부 점검 후 산소 결핍(또는 유해가스 중독 추정)으로 의식을 잃고 추락)



2017.05.18 사망 1명  
맨홀 내 우수·우수 조절밸브 시험 가동  
(작업자가 맨홀 내부로 내려가던 중 산소 결핍(추정)으로 인해 맨홀 하부로 추락)



2017.04.03 사망 2명  
바지선 검사 및 수리 작업  
(바지선 부력 탱크 내부 점검 중 질식사고)



2016.11.29 사망 1명  
TIG 용접 작업  
(공기 이송용 SUS배관의 TIG 용접 완료 후 가스 누출 방지 패드 제거 작업 중 사망)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107건의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 봄철(3~5월)에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으므로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질식재해: 봄철(3~5월, 34건), 겨울철(12~2월, 30건), 여름철(6~8월, 25건), 가을철(9~11월, 18건) 순으로 발생

## 밀폐공간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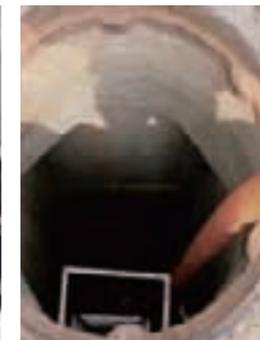
유기물의 부패나 미생물의 번식 등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공간



정화조



분뇨처리장



맨홀



원료 저장탱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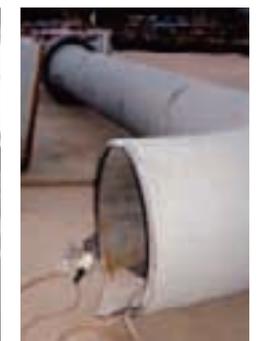
침전조



반응기



식품발효 저장조



용접 배관내부

##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

질식사고의 대부분은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산소농도 측정, 환기 및 호흡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1. 밀폐공간의 파악과 교육

-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그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이러한 밀폐공간의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2. 밀폐공간 출입금지표시 및 위험 경고

- 밀폐공간 출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시와 함께 질식 위험성을 경고하세요.

### 3.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세요!

- 산소나 유해가스는 눈으로 또는 냄새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제 작업했던 장소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산소측정기 또는 유해가스측정기로 공기 상태를 확인하세요.

산소 18~23.5% 사이  
황화수소 10ppm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그 밖의 유해가스는 해당 물질의 노출 기준)



### 4. 밀폐공간 작업 시 반드시 환기하세요!

- 공기 측정 결과, 적정 공기 상태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작업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뇨, 오수, 펄프액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이 있었던 장소는 처음에는 공기 상태가 정상이었다가 작업자가 휘저을 경우 급격하게 황화수소, 메탄가스가 발생하여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 전과 작업 중에는 반드시 환기하세요.

### 5. 긴급상황 발생 시 무작정 들어가지 마세요!

- 밀폐공간 내 작업 근로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119나 관리자에게 연락하세요.
- 빨리 구조하겠다고 공기호흡기를 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가는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 질식 사망자의 상당수는 공기호흡기를 하지 않은 채 급하게 구조하려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장비 무상 대여

-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이동식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사업안내→직업건강→'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신청' 클릭→관할 지역본부(또는 지사)를 선택하여 신청→해당 신청기관에 방문하여 수령

## Q 어떤 경우가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성적 의도를 갖고 언행을 한 것이 아닐지라도 본인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① 육체적 행위 ② 언어적 행위 ③ 시각적 행위 ④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으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었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 1) 육체적 행위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2015.12.11., 여성고용정책과-3792).

### 2) 언어적 행위

회식 때 유부남인 직장 동료가 제 손을 만지고, 손등을 톡톡 치면서 "내가 총각이었으면 대쉬 했을 텐데"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주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함(2015.8.13., 대전지법2014구합104413).

### 3) 시각적 행위

교수님이 비키니차림의 여성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함(2014.6.12., 서울중앙지법2013가합53811).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성희롱을 참아 넘기기 보단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가해자에게도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 기업 내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Q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에 대해서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1999.4.23., 대법97누16459판결).

따라서 배달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업무기인성과 ② 업무수행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배달사고 관련 추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신속배달을 요구한 고용주로 인해 배달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신속배달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여 신호위반 등을 한 근로자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산재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① 근로자에게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② 신호 준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매일 이를 주지시킬 이유가 없으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속한 배달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신호 준수의 의무를 어기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이상 통상적인 업무지시로 보여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2009.6.1., 수원지법2008가단81639 참조).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참여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향후 대책의 실행과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책이 청년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점검과 모니터링 과정에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장관은 그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청년정책의 홍보 방식에 대한 비판도 많았던 만큼, 향후 대책의 주요 과제를 청년들에게 알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대책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청년들이 정책을 알고, 참여해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한편, 기존의 홍보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서 청년들이 홍보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SNS 등 청년 친화적인 매체를 통해서 정부 대책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자리대책 설명회 개최

3월 27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흰물결아트센터에서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에서 발표했던 대책을 청년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체계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운영을 위한 매뉴얼 발간

고용노동부는 최근 워라벨(Work & Life Balance, 일·생활 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를 발간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근무제도로,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유연근무제의 법적·제도적 모호함으로 인해 제도 도입·운영 시 대상직무,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변경 등 법적요건 검토와 근태관리, 수당, 휴가 등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연근무제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관련 전문가, 사업 담당자 등이 매뉴얼 제작에 참여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매뉴얼은 전국 주요 사업장, 사업주 단체, 고용센터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18.03.06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천민정 사무관(044-202-7497)

###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발표

정부는 3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통영)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의 지원과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은 우선 추진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화·맞춤형 대책을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지원 대상은 군산 지역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해당기업 근로자, 군산시 소상공인, 통영 지역 성동조선 협력업체, 해당기업 근로자, 통영시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은 개별 기업의 보증 확대를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1년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해당 지역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40억 원 추가 배정, 세금 및 관세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속 지원대책이 지역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18.03.08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황승완 사무관(044-203-4422)

###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순회점검활동 개시

건설업계 퇴직자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 167명이 중소 건설현장 순회점검활동에 투입된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굴착작업, 건설기계·장비 사용작업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한다.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중 74.7%(1,024명)가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짧은 공사기간, 현장 관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

2010년부터 시작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4~2016) 3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지킴이가 순회점검한 현장은 전체 현장 대비 21.3%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03.21 산업안전과 최장선 서기관(044-202-7727)

###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이하 e-현장행정실)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e-현장행정실은 고용, 노사관계, 산업재해 등 고용노동 분야 정보를 총망라하여, 현장 상황과 정책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지난 2월 21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1단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여 고용·임금 등 일부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이번에 2단계로 비정규직, 청년 등 핵심정보를 추가하여, 고용·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정보, 근로감독·산업재해 등 노동정책 정보, 여성·청년 등 정책 대상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e-현장행정실 서비스가 본격 개시됨에 따라, 고용, 노사관계, 산재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금체불, 비정규직, 청년일자리사업 등 정책 추진현황을 각 항목별로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각 지역별 정책집행 상황도 비교·분석할 수 있어 정책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2018.03.26 혁신행정담당관실 김주실 사무관(044-202-7049)

#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워라밸, 일하는 문화 개선으로 실천하세요.



임금의 명도 거부한

# 서유망



조선 순조 대에 활약한 인물인 서유망은 명망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서유망의 아버지인 서형수는 주변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강직한 인물이었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보고 배우며 자랐다.

자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 암행어사로 활약한 서유망

서른일곱인 순조 3년에 증광 문과 갑과에 급제한 서유망은 마흔둘인 순조 8년 전라도의 암행어사로 파견이 되는데, 이때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전남 보성의 관아에 출두한 서유망은 보성군수 권사억에 대해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권사억은 당시 전형적인 탐관오리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만 열중한 인물이다. 이를 알게 된 서유망은 보성 관아에 출두해 권사억의 죄를 다스리게 되는데, 창고에 가득한 식량들이 형편없는 품질의 것들이었다. 이에 서유망은 무작위로 쌀 열 석을 골라 되질을 시켜 보는데, 1석의 곡식이 양이 적어도 너무 적었다. 다시 키질을 하여 빈 껍데기를 날려 보냈더니 남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권사억이 아전들과 짜고 쌀을 몰래 빼돌리고 훗이나 겨로 채웠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서유망은 권사억을 그 자리에서 파면시키고 다른 인근 고을의 사또들에게 창고 안에 있던 모든 곡식들의 키질을 시켜 결과를 보고 받는다. 꼼꼼히 일의 전후 관계를 파악한 뒤 범행에 동조한 창고지기의 자백까지 받아 조사 과정을 상세히 덧붙여 조정에 알렸다.

## 임금의 명도 거부한 대쪽 같은 절의

서유망이 성균관의 으뜸 자리인 태학장이가 되었을 때의 일화도 있다. 임금이 성균관 문묘의 공자 신위에 참배를 할 때 태학장이의 의례를 책임지는데, 선열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하마비(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뜻을 새긴 석비) 앞에서 모두 말에서 내렸다. 이때 어영대장이 말이 빨리 달리는 바람에 고삐를 제어하지 못하고 하마비를 뛰어넘어 수십 보 안까지 들어갔다. 이에 서유망이 어영대장의 마부를 잡아 가두니 어영대장이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한다.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서유망의 친척에게 마부를 석방하고 어영대장을 봉직하라고 타이르라는 어명을 내리지만 서유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임금이 너그럽게 일을 봐 달라는 뜻을 전하자 서유망은 크게 노하여 “법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으니 사직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전한다. 그러자 임금도 그의 절의를 높이 평가하여 일을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 따뜻한 봄만 되면 찾아오는 춘곤증

어느덧 매서운 동장군이 물러가고 포근한 햇빛과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왔다.  
하지만 반가운 것도 잠시, 점심을 먹고 들어와 잠시 앉아 있으면 어김 없이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진다.  
봄철의 대표적인 증상인 춘곤증 때문이다.

글 편집실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 춘곤증의 원인과 증상

춘곤증의 공식 명칭은 '계절성 피로감', '봄철 피로 증후군'이다. 이름처럼 봄만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이 다양하지만, 주요 원인으로서는 계절적인 변화로 인한 생체리듬 변화를 꼽는 경우가 많다.  
춘곤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피로, 졸음, 식욕부진, 소화불량, 현기증인데,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될수록 춘곤증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춘곤증을 겪지 않다가도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이다. 춘곤증은 대개 1~3주 정도면 없어지지만 4주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간염, 빈혈, 갑상선 질환 같은 다른 질병으로 인한 피로감일 수 있으니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 춘곤증 극복법

충분한 수면은 춘곤증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하루에 7~8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이 좋다. 밤에는 졸립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이 늦게 들었더라도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직장인들 중에는 간혹 평일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체의 생체 리듬을 깨뜨려 피로를 더욱 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낮에 졸음을 참기 힘들다면 15분 내외의 낮잠을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낮잠 시간이 30분을 넘길 경우, 밤잠을 설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힘든 직장인들은 사무실에서 간단한 맨손체조와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산책을 하는 것도 춘곤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  
카페인과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고, 담배도 피한다. 음식은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봄나물을 먹는 것이 좋다.

# 입맛 돋우는 봄철 영양식 주꾸미

동의보감에 의하면 주꾸미는 기(氣)와 혈(血)을 조절하여 몸을 보호하고 하체의 힘을 증진시키며, 간을 이롭게 한다고 되어 있다. 봄이 되어 온 몸이 나른해지고 입맛이 없을 때 주꾸미를 먹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리 편집실 도움 자료 한민족문화대백과

## 오래전부터 식용해 온 주꾸미

주꾸미는 오래 전부터 식용해 온 것으로 짐작되는데, 옛 문헌에도 종종 등장한다. <자산어보>에서는 한자어로 준어(鱻魚) 속명을 죽금어(竹今魚)라 하고 '크기는 4~5치에 지나지 않고 모양은 문어와 비슷하나 다리가 짧고 몸이 겨우 문어의 반 정도이다.'라고 기재하였다.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에서는 한자어로 망조어(望潮魚), 우리말로 죽근이라 하고 '모양이 문어와 같으면서 작다. 몸통은 1~2치 이고 발은 길이가 몸통의 배이다. 초봄에 잡아서 삶으면 머리 속에 흰 살이 가득 차 있는데 살 알갱이들이 찐 밥 같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반초(飯林)라 한다.'라고 하였다.



## 다양한 영양소의 보고

주꾸미는 저지방,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같은 연체 동물인 오징어보다 지방 함량이 적어 열량이 절반 수준이다. 다량으로 들어 있는 철분은 빈혈을 예방한다. DHA는 혈액순환과 두뇌 발달에 좋다. 주꾸미는 타우린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데, 낙지에 비해 2배나 높다.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시력을 좋게 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며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다. 주꾸미의 먹물에는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이 들어 있어 입맛을 돋우며 소화력을 높여준다.

## 신선한 주꾸미 고르는 법과 손질하는 법

주꾸미는 봄이 제철인데, 산란기를 앞두고 알이 꽉 찬 암컷이 가장 맛있다. 주꾸미 머리에 저장하고 있는 풍부하고 고소한 맛의 알은 입맛을 돋우기 때문이다.

주꾸미를 고를 때는 표면에 윤기가 흐르고 진한 회색인 것으로 고른다. 표면이 너무 미끈거리지 않고 눈과 눈 사이에 금색 동그라미 무늬가 있는 것이 좋다. 속살은 말간 우윳빛을 띠고 눌러 보았을 때 살이 탄력이 있으며 몸통이 통통한 것이 좋다. 빨판에 손을 댔을 때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는 것이 신선하다. 주꾸미는 주물러 씻으면 수분이 빠지고 쫄맛이 강해진다. 밀가루를 주꾸미에 뿌리고 손으로 박박 주무른 다음 물로 씻으면 빨판 속에 들어 있는 빨과 이물질이 말끔히 씻겨 나간다.

## 매콤한 주꾸미삼겹살볶음 만들기



**재료 :** 주꾸미 4마리, 돼지고기 삼겹살 300g, 양파 1개, 대파 1줄, 통깨 1작은술  
**양념장 재료 :** 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 3큰술,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다진 마늘 2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 만드는 법

- ① 양념장 재료를 모두 섞어 둔다.
- ② 주꾸미는 씻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 ③ 양파는 큼직하게 8등분하고 대파는 종중 썰어 둔다.
- ④ 팬에 삼겹살과 1의 양념장 1/2을 넣고 볶아 준다.
- ⑤ 삼겹살이 익으면 3의 양파를 넣고 볶는다.
- ⑥ 양파가 투명하게 익으면 주꾸미와 나머지 양념장을 넣고 센 불에서 가볍게 볶아 준다.
- ⑦ 대파를 넣고 통깨를 뿌려 마무리한다.

# 상식을 넓히는 소소한 잡학 모음

세상은 넓고 지식은 넘쳐난다.  
그 가운데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있지만,  
알면 좋고 몰라도 무방한 지식도 많다.  
필수는 아니어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모았다.

글 편집실

## 건강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컬러푸드 상식

녹색 식품에는 비타민 C, 아스파라긴산,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간 기능 회복에 효능이 탁월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붉은색 식품에는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는 몸에 쌓인 독소를 없애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을 한다. 검은색 식품에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노화 방지와 항암 작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란색 식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는 안구건조증과 피부 상태 개선에 큰 효과를 준다. 흰색 식품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안토 크산틴 색소가 들어 있는데 이들은 항 암 효과와 체내 산화 작용을 하여 유 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균과 바이러스에 저항력을 길러 준다. 보라색 식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 토시아닌이 함유돼 있는데, 이 는 동맥에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여 심장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며 피를 맑게 해 준다.



### 베이크 아웃으로 깨끗한 실내 공기 만들기

베이크 아웃이란 집 안 온도를 높여 건축 자재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도록 하고 일시에 문을 열어 밖으로 빼는 것이다. 자주 하기는 어렵지만 봄을 맞아 묵은 공기를 없애는데 탁월하다. 집 안에 있는 옷장과 서랍 등을 모두 열고 창문과 문을 모두 닫은 다음 보일러 온도를 30~40도 정도로 설정하여 5~6 시간 유지한다. 시간이 지나면 일시에 현관문, 창문 등 집 안의 모든 문을 1시간 이상 열어 두어 유해물질을 배출시킨다. 새집은 1년에 3~5회, 지은 지 10년 이상된 집은 1년에 1~2번으로 충분히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 내가 사 온 식품 냉장고에 똑똑하게 보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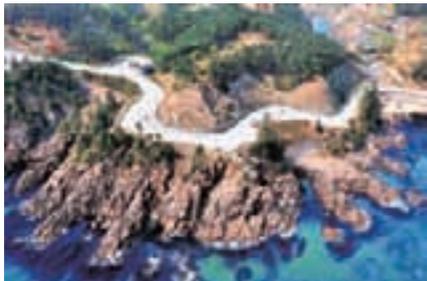
고기를 보관하기 전에 식용유를 발라 주면 기름막이 형성되어 고기 속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다. 달걀은 둥근 쪽을 위로 두고 보관한다. 생선은 머리와 내장을 깨끗이 손질한 뒤 물기를 제거하고 밀폐하여 냉동실에 보관한다. 이때 한 토막씩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사용하기 편리하다. 뿌리채소는 씻지 않고 흙이 있는 채로 종이에 싸서 보관하면 오래간다. 사과는 다른 과일을 쉽게 부식하게 하기 때문에 비닐팩이나 신문지에 싸서 다른 과일과 분리해 냉장 보관한다.



# 삼척 역사 속 이야기거리가 있는 매력적인 도시

강원도 동남쪽 끝에 위치한 삼척은 동해에서도 가장 번성했는데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군사 기지로 중요하게 쓰였던 곳이다. 강원도 내에서 가장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았던 삼척은 1980년대부터 급속히 활기를 잃었다. 현재는 화려했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시간이 멈춰 버린 듯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글 노혜진 사진 삼척시청 제공



새천년도로



이사부 사자공원

## 신라장군 이사부와 함께 하는 삼척

삼척에서 활약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신라장군 이사부이다. 신라 지증왕 때 현재의 삼척인 실직주에 부임한 이사부는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있던 우산국(현 울릉도) 주민들을 나무로 만든 사자로 굴복시켰다. 이 때문에 삼척에는 이사부 장군을 기리는 장소가 많은데, 대표적인 곳이 '이사부 광장'과 '이사부 사자공원'이다. 이사부 광장에는 이사부 장군의 상징인 나무 조각이 한 쪽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고 축구골대와 농구대 등이 있어 가볍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 휴식을 할 수 있는 테이블도 있어 날이 좋으면 이곳에서 조촐한 파티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새천년 해안도로를 지나다 보면 만나는 이사부 사자공원은 삼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타워와 사계절 썰매장, 야외 공연장과 어린이 놀이터, 휴게음식점 등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가족 나들이를 하기에는 제격이다.

## 헌화가 수로부인 척주동해비로 이어지는 역사 여행

신라와 인연이 깊은 삼척에는 '헌화가'의 주인공인 수로부인의 전설도 남아 있는데 이를 기리기 위해 이사부 사자공원과 가까운 곳에 '수로부인 헌화공원'도 조성되었다.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남편을 따라 온 수로부인에게 노인이 꽃을 꺾어 바치면서 만들어진 노래가 '헌화가'이며, 그 지점에 공원이 세워진 것이다. 공원에는 높이 10미터에 달하는 대형 수로부인의 동상도 자리하고 있다.

삼척이 내려다보이는 육향산에는 '척주동해비'가 서 있다. 이곳에는 조선 현종 때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미수(眉叟) 허목 선생이 삼척 부사로 재임할 당시 동해안의 파도가 심해 피해가 극심하자 이를 물리치기 위해 만들었던 곳이다.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는 마음으로 동해 바다를 기리는 글이 적힌 비석은 탁본을 하면 화재를 막는다는 신기한 전설도 같이 전해진다.



수로부인 헌화공원



척주동해비

## 해학이 가득한 지명의 향연

삼척항에는 재미있는 유래를 가지고 있는 지명이 많다. 삼척항에 있는 '나리골'은 난리골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억척스럽게 삶과 전투하듯이 살았던 마을이라고 한다. '건너뿔'이라는 마을도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뜻이라고 전해져 오는데 확인된 바는 없다. 항구에서 방파제를 따라 조금 더 들어가면 '막장까지 갔다.'는 뜻의 '막장'이라는 마을도 있다. 이곳은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받는 곳이다.

### 삼척에서 꼭 먹어 봐야 할 두 가지

#### 원조 중의 원조, 곰치국



기가 막힐 정도로 못생긴 곰치지만 곰치국의 맛은 가히 환상적이다. 삼척의 곰치국은 다른 생선탕과는 달리 묵은 김치를 송덩송덩 썰어 넣고 곰치살을 듬뿍 넣어 소금만으로 간을 하여 푹 끓여 낸다. 부드럽고 비린 맛이 없는 곰치살은 수저로 떠서 먹는데, 칼칼하고 시원한 맛이 해장국으로 좋다.

#### 저렴하면서도 무집한 맛, 대게



삼척은 대게로 유명한 지방은 아니지만 최근 입소문을 타고 대게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타 지방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맛은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잘 찌진 대게의 살은 쓱쓱 골라서 발라 먹고 마지막에 내장에 밥을 비벼 등딱지에 얹어 먹으면 다른 음식은 쳐다 보기도 싫을 정도의 별미가 된다.

# “청년 채용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1.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원업종·요건 대폭 완화, 지원금액 상향조정



## 2. 고용증대세제 강화

세액공제 기간 및 금액 확대(조특법 개정)



#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돕겠습니다”



##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개편(추경 통과이후)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 고용노동부 >



- 장기근속 유도 위해 인센티브 강화한 3년형 신설
- 생애 최초 취업자 대상
- 3년간 청년 600만원 + 정부 2,400만원 = 총 3,0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II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직중인 청년 대상
- 가입기간 5년, 최대 3,000만원  
목돈 마련(3년간 720만원 정부 지원)  
예시) 청년 720만원(5년) + 기업 1,500만원(5년) + 정부 720만원(3년) = 약 3,000만원

직장 탐색기간 보장  
< 고용노동부 >



- 가입기한 연장(취업 후 1개월→3개월) + 가입 3개월 이내 퇴사 시 1회 재가입 허용
- 지원기간(2년) 중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도해지 된 경우 추가 가입(1회) 허용

## 2. 취업청년 소득형성 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현 3년간 70%)

EITC 대상을 30세 이하 청년단독가구까지 확대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주거임대료 저리 융자지원 \*3,500만원까지 저리(1.2%) 대출

## 3. 직장문화 개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
  - 근로시간 단축, 휴가활성화를 실현한 기업에 세제 컨설팅 등 지원
-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법령이 준수되도록 지도·감독 강화

성희롱 근절



- 공공부문
  - 공공기관 전체 성폭력·성희롱 특별점검 실시
  - 예방지침 표준안 보급
  -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
- 민간부문
  - 성희롱 처벌 강화
  - 사내외 신고시스템 강화
  - 피해자 상담 및 권리구제 효율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18.上)
  - 사업장 내 문제해결 시스템 구축 유도
  - 피해구제 강화 과제 검토
- \* 근로기준법상 배려의무 선언,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가이드라인 작성 및 컨설팅 지원 등

##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월간 <내일>이 함께 합니다.

### 웹진으로 <내일>을 만나 보세요

월간 <내일>을 웹진으로 만나 보세요. 월간 <내일> 홈페이지(<http://labor21.com/>)에 접속하면 지난 호부터 최신 호까지 다양한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월간 <내일>은 독자들이 만들어 갑니다

월간 <내일>은 독자들과 함께 합니다. 알고 싶은 정책, 좋았던 기사, 기타 개선해야 하는 점 등 자유로운 의견을 보내 주세요.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이 월간 <내일>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 2월호 퀴즈 정답 최저임금제도

#### 2월호 당첨자

김용란(울산시 남구)	이한주(서울시 중랑구)	최준혁(대구시 수성구)
김윤희(서울시 도봉구)	이훈록(대구시 남구)	황성원(서울시 송파구)
김은영(대구시 서구)	조정희(서울시 동작구)	
김화영(부산시 부산진구)	최석원(부산시 사하구)	

\*축하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1만 원)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 3월호 퀴즈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의 퇴직 이후의 고용 촉진을 위해 도입된 방안으로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월간 <내일>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독자 퀴즈도 풀고 상품도 받아 가세요. 독자 퀴즈의 정답은 책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1만 원)을 드립니다.



[www.labor21.com](http://www.labor21.com)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월간 <내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을 만나 보세요

일을 통한 행복을 알려 주는 고용노동부의 소식지 월간 <내일>  
 월간 <내일>에는 도움이 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직원과 상생하며 성장해 나가는 기업,  
 알고 싶은 상식 등 꼭 필요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봄봄봄봄이  
왔어요



내일

my Work, my Tomorrow 2018. 3. vol. 515

보내는사람

성명 \_\_\_\_\_ (남 여)

주소 \_\_\_\_\_ 휴대폰( - - )

□	□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7.01.25 - 2019.01.24

서울강남우체국  
제41787호

my Work, my Tomorrow 2018. 3.

내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3길 8 (신사동, 산도빌딩 5층)

하나로애드컴 월간 <내일> 편집실 앞

0	6	0	2	6
---	---	---	---	---

〈 Campaign Report 〉

1. 귀하의 성별은?

- 남자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 10대  
 20 · 30대  
 40 · 50대  
 60대 이상

3.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군은?

- 유통 · 서비스업  
 제조업  
 의료 · 제약  
 교육업  
 건설업  
 IT통신  
 미디어디자인  
 금융업

4. 귀하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섹션은?

- 청년 정책  
 여성 · 중장년 이야기  
 기타 고용노동정책  
 문화예술 정보

6. 보셨다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업종 다양화  
 실패 사례  
 관련 제도  
 트렌드사업 정보

5. 귀하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 정책은?

-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개선  
 안심일터  
 노사관계

● 3월호 독자퀴즈의 정답을 적어 주세요.

●● 이번 호에서 인상 깊었던 기사와 그 이유를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 다음 호에 실렸으면 하는 내용이나 월간 〈내일〉에 바라는 점을 적어 주세요.

이곳에 풀을 칠해 주세요